





**속리산 주요 탐방코스 안내** \*코스 난이도 별 5개 기준

**1. 문장대 코스**



코스 난이도 ★★☆☆☆  
 편도 6.5km, 2시간 45분  
 속리산 문장대는 해발 1,054m이며, 정상에 오르면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. 문장대는 봉우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원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일명 "문장대"라고도 불립니다. 특히 속리산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가장 추천하는 코스입니다.

시각 ▶ 법주사탐방지원센터 ▶ 세심정휴게소 ▶ 북천암 ▶ 중사자암 ▶ 문장대

**2. 천왕봉 코스**



코스 난이도 ★★☆☆☆  
 편도 6.2km, 2시간 45분  
 속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(1,058m)을 오르는 코스입니다. 산행을 하면서 배석대, 은폭동, 폭포 등 아름다운 경치들을 마주할 수 있으며, 정상에 오르면 문장대부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

시각 ▶ 법주사탐방지원센터 ▶ 세심정휴게소 ▶ 상환암 ▶ 상고암 ▶ 천왕봉

**3. 화북-법주사 코스**



코스 난이도 ★★☆☆☆  
 편도 9.8km, 6시간  
 문장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에서 시작해 충청북도로 넘어가는 가깝고도 먼 코스입니다. 산행경험이 많은 분들은 문장대에서 등산을 타고 천왕봉까지도 다녀올 수 있지만 컨디션이 나쁘거나 경험이 많지 않다면 무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시각 ▶ 화북탐방지원센터 ▶ 오송폭포 ▶ 문장대 ▶ 세심정휴게소 ▶ 법주사탐방지원센터

**4. 법주사 탐방 & 세심정 산책 코스**



코스 난이도 ★☆☆☆☆  
 세심정: 편도 3.2km, 50분 (법주사 60m, 20분)  
 쌍사자석등, 팔상전 등 많은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는 미륵신앙의 요람 "법주사"를 탐방하는 코스입니다. 정상까지 갈 시간이 없거나 산행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세심정휴게소까지의 산책 코스로 추천합니다.

시각 ▶ 법주사탐방지원센터 ▶ 자연관찰로 ▶ 법주사 ▶ 세심정휴게소